

코스피 ↑ 2862.68 (+20.40)
코스닥 ↑ 958.70 (+24.80)
금리 (연이자율) ↑ 2.119 (+0.046)
환율 (환율) ↑ 1192.40 (+0.70) (20일)



한화손해보험 com
심고 저렴한 자동차보험
1899-9682
 *보험금 지급은 신속하며, 사고처리 비용이 낮습니다. *주요 차량은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금 지급이 빠릅니다. *보험금 지급은 신속하며, 사고처리 비용이 낮습니다. *주요 차량은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금 지급이 빠릅니다.

m-커버스토리

수요예측 1.5경, 증거금 114조... 증권사 수익 1000억

(수수료)

LG에너지솔루션 'IPO 새역사'

공모금액 12조 대어급 상장예
 파상 노린 투자자 자금 몰림듯
 청약접수 442만4470건 기록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를 새로 썼다. '경(1조원의 만 배)' 단위의 기관투자자 주문액을 모으고, 114조원 규모의 일반 투자자 청약 증거금이 몰리는 등 다양한 신기록을 세웠다. 최근 국내·외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공모금액 12조원 규모의 대어(大魚)급 상장예 투

자자들의 자금이 풀리면서다. (관련기사 4면)

◆442만명 일반청약 나서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8~19일 양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총 114조1066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 사상 최대다.
 종전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4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증거금 80조9017억원을 넘어섰다.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인 1097만2482주에 대해서는 총 442만4470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중복청약이 금지돼 442만4470명이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나선 셈

이다.
 총 공모금액도 12조75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기존 1위였던 삼성생명(4조8881억원)을 제쳤다. 지난해 IPO 대어로 꼽혔던 크래프톤(4조3098억원), 카카오뱅크(2조5526억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2조2459억원), 카카오페이(1조5300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1조4917억원) 등의 기록도 모두 깼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12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기관 주문액 1경5203조원을 모아 사상 처음으로 '경' 단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쟁률 역시 2023대 1로 코스피 IPO

<코스피 역대 공모기업 상위 10개사>

순위	기업명	상장일	공모금액
1	LG에너지솔루션	2022년1월27일(예정)	12조7500억원
2	삼성생명	2010년5월12일	4조8881억원
3	크래프톤	2021년8월10일	4조3098억원
4	넷마블	2017년5월12일	2조6617억원
5	카카오뱅크	2021년8월6일	2조5526억원
6	삼성바이오로직스	2016년11월10일	2조2496억원
7	SK아이이테크놀로지	2021년5월11일	2조2459억원
8	대한생명	2010년3월17일	1조7805억원
9	카카오페이	2021년11월3일	1조5300억원
10	제일모직	2014년12월18일	1조5237억원

한국거래소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정기간 내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율 비율도 77.4%에 달했으며, 공모가

는 희망 밴드 최상단인 30만원으로 결정됐다. (4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5대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상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 1.25% 인상으로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이번 주 들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2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뉴시스

정통패션 위기 속 패션플랫폼은 '승승장구'

코로나궤 패션 지형도 변화

무신사·지그재그 등 버티컬플랫폼
 온라인 쇼핑 거래에 가파른 성장세

코로나 19가 패션의 지형도도 바꿔놨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통 패션 기업은 힘을 잃은 반면, 패션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버티컬 플랫폼들이 급부상한 것. 특히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와 같은 패션 플랫폼 서비스들의 연 거래액 규모가 1조원을 넘어 2조원까지도 바라보는 실적을 달성하며 패션 업계에 견인하는 '주역'으로 떠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패션 전문 버티컬 커머스 선두로 꼽히며 국

내 패션 플랫폼 최초로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다. 지난해 무신사 스토어 및 스타일쉐어, 29CM, 솔드아웃 등 무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은 거래액 총합이 약 2조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맞고 있다.
 카카오택시 운영 중인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도 2021년 한해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하며 '2030 여성 패션' 전문 플랫폼 최초로 연간 거래액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의 에이블리는 작년 거래액이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거래액 1조원을 넘길 전

망이다.
 이밖에 브랜드도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월 거래액 700억원을 돌파했으며 이대로 가면 2022년 연내 연간 거래액 1조원도 기록할 것이라 예측을 내놓았다.
 이같은 패션 버티컬 플랫폼 상승세는 전반적으로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서 종합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고, 버티컬 커머스로 불리는 전문몰의 거래액은 종합몰의 3배 이상에 달하는 33.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면에 계속)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공공일자리로 버틴 코로나 첫해 취업자 10명 중 1명 공무원 됐다

2020년 공공 일자리 276.6만개
 코로나 취업 한파에 공시족 급증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여건 시급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던 2020년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가 16만개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정부, 기업 등 공공 부문 일자리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 부문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소위 '공시족'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의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공공 부문 일자리는 총 276만6000개로 전년보다 16만4000개(6.3%)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이 중 일반정부 일자리가 237만5000개로 15만5000개(7.0%), 공기업 일자리도 39만1000개로 9000개(2.3%) 각각 늘었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전년(9.5%)보다 0.7%포인트 상승한 10.2%로 처음 10%대를 넘어섰다.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이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는 2472만5000개로 전년 대비 2.9% 늘었는데 공

공 부문의 일자리의 기여도가 컸다는 분석이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영향으로 경찰·소방·교육 등 공무원 수가 늘었고, 2020년 코로나 확산기에 공공부문 과연·용역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과 정부 일자리 사업이 진행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일자리가 136만7000개로 전년 대비 11만7000개(9.4%)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일자리는 85만개로 2만7000개(3.3%), 지방정부는 147만7000개로 12만5000개(9.3%) 각각 증가했다.
 공무원 증원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취업 한파로 고용안전성이 높은 공공 부문 일자리 선호도가 커지면서 청년 공시족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이 취업 대신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은 국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청년층이 비경제활동으로 포함되면서 생산과 소비에서 큰 규모의 경제적 기회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규제 완화, 신규 일자리 세제 혜택 등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대통령 "오미크론 우세종 기정사실화... 범부처 총력대응"
 ▲ 李 "정부, 北 상황 오판 않도록 분명·단호하게 대처해야" /사진 뉴시스

▲ 김총리, 광장시장 설 물가·방역 점검 "물가 관리 최선"
 ▲ 靑 "1가구1주택 보유세·중부세 완화, 3월중 발표"



▲ 尹 "연말정산 본인 기본공제 200만원으로 인상" /사진 뉴시스
 ▲ 安 "문대통령, 코로나19 관련 여야 대선 후보 靑회동 주선해야"